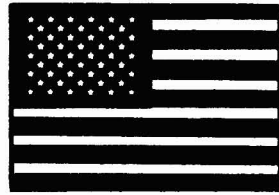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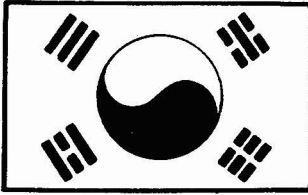

Published by the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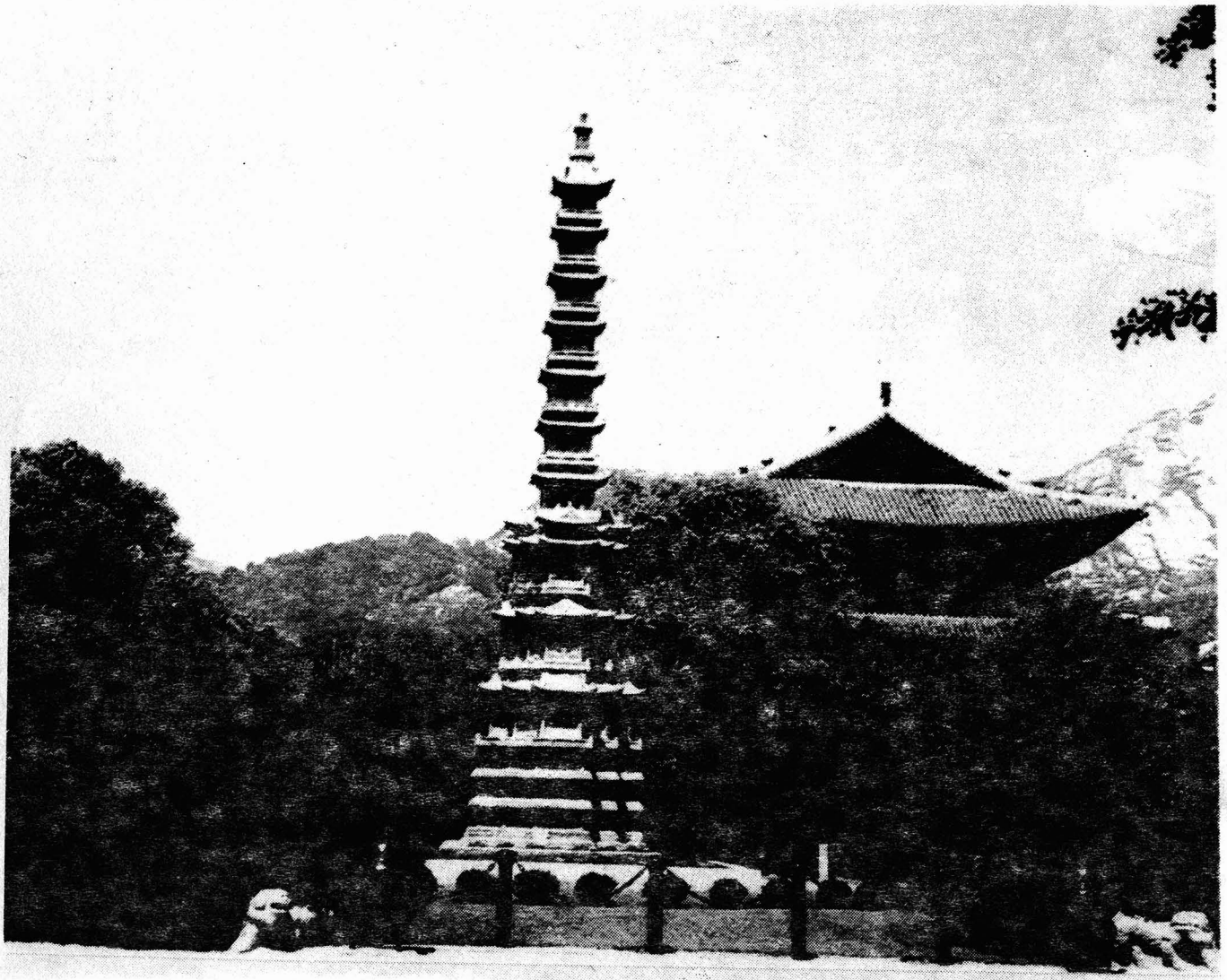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shington 98124

Ke-Hi Oh - Publisher
Sung-Hwi Pak - Editor
(206) 362-4500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1984

March



영미정

한국 최고의 궁중요리사
드디어 영미정 주방에
초빙되었음.

대표 조 영

84년1월1일부터

일본식 요리 개시

○ 최신식 완전 자동냉면기계 설비

○ 대 연회장 완비

○ 넓은 주차장 시설

(씨애틀 최대 규모와 격조높은 나이트 클럽)

★로스엔젤레스에서 대인기를 모은

대형가수 문희진양 출연★

※ 가족회식 ※ 친목회식 ※ 귀한손님접대 ※ 축하연등
모임에 따라

10명에서 150명 400명 까지

한자리에 모실수 있습니다

YOUNG ME RESTAURANT
623-3112

220 4th Ave So Seattle, WA 98104

7 DAYS A WEEK 11:00 AM 2:00 AM

3월호 목차 (CONTENTS)

권두언	4
3·1절 기념사 및 축사	6
1/4분기 재무보고	8
한인회비 및 각종찬조금 내신분들	9
한국의 밤 행사안내 말씀	10
한인회 활동	12
① 시애틀시장 및 경찰서장 예방	
② 이사 및 임원 공동회의	
③ 3·1절 행사 거행	
생활정보	
① 엔진의 튜업요령	14
② 사업체 매입시 유의사항	16
교포사회 소식 및 동정	17
특별기고	
① 나가는 교회와 나가주는 교회	18
② 부활절 에세이	19
교육정보	
① 한글학교 신입생 모집	21
② 워싱턴주 12개 중고등학교의 모범학교추천	22
취직안내	23
저상강좌 (명심보감)	24
한국인 보일러제조원조합원에게 보내는 감사의편지	26
DEAR SISTER & BROTHER BOILERMAKERS (LOCAL 104)	27
CULTURAL COLUMN (CHU SUK)	29

『권두언』

·우리를 알리자·

우리 만민족에게 있어서 3월은 다른 어느달보다도 더 많은 의미가 주어지는 달이기도 하다. 우수 경첩을 지난 지금쯤 그향산천 금수강산에는 방방곡곡 만물이 초생하는 새봄을 맞아 들이는 나물캐는 소녀들의 저고리그림이 휘날리고 개울가 아지랑이가 꽃나비 나타남을 시샘하는 달이기도 하고 민족적, 정치적으로는 3.1 독립운동이 있었던 달이라서 자주독립의 기본이 되는 우리 민족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민족적 대동단결과 화합으로 힘을 뭉쳐 타로부터의 압박과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이며 평화스러운 민생을 찾는 데 대한 각오를 일깨우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이민착서 정착하고 있는 우리 동포의 수가 백만 가까이 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우리 주역을 돌아다보면 씨애틀-타코마시 그리고 워싱턴주에 정착하고 있는 동포의 수는 3만을 넘고 있다는 얘기도 보면 10년전의 이민현황에 비하여 작금의 그것은 분명히 엄청난 차이와 급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을 쉽게 알게 된다. 조국에서 우리 동포들이 맞이하는 3월과 이곳 미국에 살고 있는 고포들에게 있어서의 3월은 같은 것인가 다를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맞이하게 되는 경우의 3월과 현재 이곳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맞이하게 되는 같은 달 3월의 의미가 정녕 같기만할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도리켜 생각해 보면 이곳 미국에 살고 있는 고포각자가 젊고 긴시간의 차이는 있을망정 대개 미국이란 신천지에 이민올 때 각각 지녔던 포부나 이유들은 거의 공통적이랄수 있다고 볼수 있다. 보다 선진문명을 받기에 흠족한 지식을 얻기위해, 혹은 이민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점을 찾기위해, 아니면 자식들의 장래문제를, 또는 옮겨진 친지와 함께살기위해 등등 이유는 여러가지이나 몇가지 공통점으로 분류하여 목어보기에 그리 힘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포부와 희망안은 모두가 똑같이 일치함을 발견할수 있다. 그것은 모두가 다 보다 잘되어 보자는 생각을 하고 앞으론 틀림없는 사실일게다. '84년도의 3월에 확실히 우리가 이민오기 전보다 잘 되어있는가를 굳이 가름해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질적인 문화권속에서의 이민생활과 정착이란 말로 하기보다 사실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생존하기위해 피나는 노력을 타문화권에 적응하며 동시에 해야한다는 것, 더우기 주권을 완전히 갖지못한 가운데 향유할수 있는 자유란 아무 리 법이 보장한다해도 실제적인 100퍼센트 자유가 된다고는 보기힘들기에 말로는 쉽지만 이 자유가 이곳 사회에서 사실상 미국의 타민족이민선배들과 모든면에서 대등하고 확고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구실을 다해주지는 못한다는 생각을 해볼때 사실 우리들 이민 1세대들은 수많은 이민생활들을 오늘을 위한 오늘로 보내왔음도 부정할수는 없을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늘날 우리들 이민 1세대포들은 그러나 어지간에도 잘 참고, 부지런하고 또 강인하여 타민족이민역사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발전하게 되었고 어쩌면 안정성장의 단계로 까지 발돋움하고 있음을 볼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울퉁하며 믿음직한 일이 아닐수 없다.

오늘날 그 생스런 과정을 겪어 나오는 가운데서도 씨애틀에 이민온 고포들은 여러가지 생업을 영위해나가며 자신들의 피어린 노력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후세들이 장차 이 사회에서 바람직하고 정당한 대우받으며 살아갈수 있는 시민으로서 발돋움할수 있는 기초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아깝

은 시행착오의 세파속에서도 끝내 좌절하지 않으며 문자 그대로 굳세게 그 기초를 나날이 확고하게 다져나가고 있음을 볼때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한 오늘"을 현명하게 억어가고 있음이라 말할수 있겠다. 그것이 강요이던 권유이던 종던심던 선택의 여지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존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들 그유의 좋은 것들을 밟이는 기회를 갖지못한채 우리들은 이곳문화에 긍정적으로 존경을 표했으며 그제도에 순종해왔고 이들 간섭에 최대의 이해를 애으며(자신의것을 그집이지않고) 살아왔다. 참으로 대견하고 울퉁한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왜냐하면 그럭기위하여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부정해야하는 용기를 갖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 그런데도 이를 극복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하 많은 오늘들을 한발한발 다져온 이곳 고포1세대들에게 깊은 존경과 수없는 만세를 보내고 싶다.

이제는 남의 도움을 받기만 하고 켜하는 우리 고포1세대가 아니고 타민족계시민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이해를 추구하는 입장으로 자신들을 다듬고있는 고민들이라해도 타당할 정도로 작금의 고민사회는 확실히 성장하여 변모해가고 있다. 그래서 남을 이해하고 배우기만해야했던 우리들은 이제 이웃들에게 우리를 올바르게 인식시켜야만 할 시점에 도달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을 해할줄 모르고 평화스러우며 반응없어도 남에게는 아플줄 알며 서로 돕고 즐거움을 다초곳이 함께하며 살아가는 착한 우리고민동포들이 이제는 역사와 문화전통이 깊고 예절바르며 평화스러운 우리의 민족상을 이웃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켜 바른 대우를 받고 나아가서는 울퉁한 민족의 우연인 우리 2세대들이 장차 이땅 미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뿐만 아니라 타민족이민우예들을 지도해나갈수 있는 터전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줘야만 할것이다. 그럭기 위하여 우리들은 안으로 우리2세대들에게 남들의 존경을 받을수 있는 울퉁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간직하고 자랑수있게 해야하는 한편 힘을 뭉아 여러방면으로 기적있을적마다 이곳 사회와 접촉해서 우리를 스스로 소개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만 하겠다. 정착에서 안정으로, 안정에서 번영으로 향한 우리의 의지를 슬기롭게 알려주고 우리민족의 장점을 이곳사회에 소개해가며 이를 받아들여가끔 감동시켜 5천년 역사와 문화의 전통 가운데 좋은점만 골라서 이곳에 도착시켜 꽃피여나갈수는 없을까? 작년도 한 인회장인 신 오범박사의 요청으로 워싱턴주에서는 4월 일 스펀만주 지사가 "한국의 날"로 선포하게되어 그날 하루는 주정부청사외에 미국성조기와 함께 태극기가 하루종일 나란히 펄럭였었다. 그날밤 한인회에서 주관한 "한국의 밤"은 주지사를 비롯 U.N.주재한국대사와 주씨애틀한국총영사 워싱턴주 및 씨애틀 지역명사들이 거의 다참석하여 우리고민들이 주선한 민족의 향그러움을 안꼐 맛보았었다. 정말 성장한 고민사회를 행동으로 직접보여주고 느끼게 해준 멋진 쾌거였다. 그 결과 작년 한해만도 이들이 한인사회를 의식하여 우리들을 그들과 대등한 입장으로 처우하는 기회를 여러방면으로 주었으며 한예로 한인사회에서 고민2세 한사람이 씨애틀시경의 경찰관으로 채용기도 했다.

금년에도 예예따라 4월 일이 "한국의 밤"이 또 꽃을 피우게된다 한다. 무엇을 보여주는냐도 크달란 문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우리고민사회전체의 힘이 뭉쳐져 이러한 일들을 할수있다는 것이 모든 이웃들에게 강열한 민족의 얼을 느낄수있게 해준다는 점이며 이러한 일들이 꾸준히 계속될때 그들은 차츰 우리들이 그들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중요한 이웃이며 바람직하고 좋은, 그리고 아름답고 울퉁한 이웃으로 서로 이웃하기를 원하는, 선망의 대상으로 우리고포들을 따르게 될것임을 미루어 생각해볼수 있는 것이다.

고모여러분 오늘 제 65회

3.1절을 당하여 이날의 의의를 잠깐 생각하여 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1절은 지금부터 65년전 우리 겨레가 백악관 독립과 자유를 되찾는 첫 발걸음을 내어던던 의의있는 순간의 날로서 모든 겨레의 그후의 발전에 원동력이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날의 목적과 이념을 다시 생각하고 나아가 오늘 의 우리의 사명도 생각하여 보는 것이 이 자리의 뜻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1901년 을사보조조약을 계기로 한국의 자치권을 빼앗은 당시 일본은 무단정치까지 한국인을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인은 자치권을 빼앗기고 한국인의 모든 자유가 박탈되거나 억제를 받았읍니다. 많은 한국인은 이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국내외의 뜻있는 인사들이 일을수행하기에 이른것입니다.

1919년 3월1일은 정의 선생및 33인은 지금 서울의 인사동 해방관에 모이고 학생및 일반민중은 파고다 공원에 모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해방관에서는 33인중 대표가 독립을 선언 세계 각국에 이것을 알릴것을 채택한뒤 이것을 송독부에 알리게 되며 동시에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름과 함께 시가도 붙여져 나가 독립된 시위를 보였습니다. 이 시위에는 온 시민이 참여 하였으며 그때의 기록에 서울시민은 10만을 넘으며 저녁이 늦도록 독립된것을 아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은 서울 뿐만이 아니고 한반도 내의 여러곳에서 동시에 일어나 독립을 선언 하고 민중이 시위를 하였으며 그로 부터 계속하여 2, 3개월동안에 반도내의 어느곳서도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은 고을이 없도록 까지 이 시위는 전 한국인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결실한 운동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후의 사가들은 이 3.1 독립운동의 의의를 두 가지 면에서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삼일 운동은 그야말로 한국인 겨레 전체가 참여하였다는 것과 둘째 삼일 운동은 독립과 자유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결실한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조사로서 이 운동에 참여한 한국인은 문자 그대로 안사람도 빠짐

이 없는 전체였다는 것입니다. 즉 직업적으로 여기에 참여치 않은 직업의 소유자가 없고 종교적으로 지방적으로 연령적으로 문자 그대로 전 한국인이 관여되지 않은 분야가 없다는 평을 들을 만치 전 한국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 운동은 분명한 정신적 목적을 뚜렷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립과 자유입니다. 이 두정신은 인간의 기본 이념이며 목적입니다.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되는 목적입니다. 자유를 빼앗는 것은 쉬운일이 아닌것같습니다. 어떤 능력이 요구되지 않나 합니다. 그 능력은 독립의 개념에서 찾아 볼수있지 않나 싶습니다. 독립은 어떤 수련과 훈련을 거치는 것이며 이렇게 하여 얻은 능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를 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3.1 운동은 손고하고 변할수 없는 이념을 갖고 있었고 이것은 전 겨레의 참여하는 아름다운 예도도 보여 주었으며 이 운동은 오늘까지도 앞으로 영원히 기념되며 후세에 고훈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것입니다.

오늘 이 시애틀 고모 사회는 많은 발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고 있지 않나 하는것이 또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3.1절은 일본 외무관 정치학에서 과감히 독립과 자유의 두 이념을 내세우고 온 겨레가 이 이념 수행에 다 참여한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애틀 고모사회는 우리가 저항하는 가장 높은 이념을 새로이 추구하고 이것을 위하여 고모사회가 다 참여하는 예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으며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도전 일것 같습니다.

3.1절은 숭고한 이념 달성을 위하여 온 겨레가 참여한 이 겨레역사의 큰 자랑의 날이며 이날은 앞으로도 길이 기념 되어 겨레의 자심과 고훈이 될것이라 믿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높은 이념을 위하여 생명까지 희생한 많은 당시의 동포와 우국지사들의 정신한 용기를 경애하는 순간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며 높은 이상을 위한 용기를 오늘 이 생활에서도 본받아야 할것이라는 것을 끝으로 생각하여 보면서 기념사에 대신합니다.

1984년 3월 1 일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 장 오 계 회

친애하는 고모여러분

오늘 제 65 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한번 65년전 온 겨레가 찬악한 일제식민지 하에서 독립선언의 깃발을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불러 그 함성이 삼천리강산 뿐만아니라 전세계에 메아리 쳐나갔던 그 위대한 3.1정신을 되새기게되며 또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신명을 바친 선열앞에 경건하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돌이켜 보면, 만일 그때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남으로 세계를 향하여 우리도 자주국민이었다고 말할수 있으며 또 어떻게 문화민족이었다고 말할수 있었겠습니까.

본시 우리는 은화한 기후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평화로운 국민 이었습니다. 가난속에서도 노예를 부르고 숨추던 멧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오랑캐의 침노를 받아 현웃에 찌자국이 얼룩진 일은 있었으나 우리 스스로가 남의 강호에 처들어가 살생하거나 약탈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선조들이 3.1운동에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불길처럼 일어날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숨통이 막혀서 더 견딜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오천년의 역사가 아주 소멸되느냐 아니면 되살아나느냐의 최종 단계에서 활산같은 폭발력을 가진 큰 단결된 민족의 힘으로 나타나고야 만것입니다. 당시 한 농부는 해국기를 흔들던 오른팔이 일본 헌병의 칼에 찔리자 이번에는 해국기를 왼손으로 잡자 헌병의 칼은 다시 그의 왼팔을 쳐내었습니다. 그는 다시 땅에 떨어진 해국기를 입으로 물고 계속 흔들었습니다. 이들은 노예도 사느니 차라리 자주 국민으로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뻔한 결과가 어찌 온 겨레의 가슴을 키르지 않을수 있었겠습니까. 남의 노소 할것 없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독립만세의 소리는 더 높이 봉화처럼 불아 일어났던 것입니다.

흔히 3.1운동은 제 28대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의하여 유발 되었다고들 말합니다. 또는 1911년 10월10일에 일어났던 중국의 신해혁명이나 1917년에 일어난 노서아 혁명에 의하여 고무된 것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당시 국소수에 인사들 제외 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윌슨 대통령이 누구이며 신해혁명이나 노서아 혁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모고 있었다고 역사가 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외적요소가 작용된것이 아니고 33인의 이름으로 발표된 독립선언서가 3.1운동 발발의 직접적인 동기요 인요인은 두말할나 도 없는것입니다. 그러나 3.1운동은 서명한 그분들에 의하여 계속 지도되거나 전개되는 못하였읍니다. 그분들은 죽시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발표한 독립선언은 곧 국

민의 목소리로 화하고 온 겨레의 자발적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3.1운동은 노서아 혁명이나 볼란서 혁명에서 보는 바와같이 어떤 특수 계층에 의하여 일으켜진 국가내부의 싸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 민족이 한 덩어리가 된 대의항쟁이었습니다.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우리 민족의 생명의 부르짖음이었으며, 그것은 일본의 탄압에 대한 일시적이며 반사적인 저항이라고만 볼수없는 것이며 그 배후에는 오랫동안 살아온 민족적 과성이 깊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친애하는 고모여러분,

우리는 해방과 독립을 얻었으나 아직도 국호분단의 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있는 현실앞에서는 자유독립및 평화의 영광된 조국안생을 위하여 손국한 선열께 죄책감을 금할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운동사상 가장 찬란하였던 3.1운동의 동불이 아직도 이강산의 북쪽을 울타진 곳으로 남겨둔채 발근게 비추지 못하고 있는것은 우리 겨레의 큰 슬픔이며, 3.1운동의 쓰라린 미안의 장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민족통일의 장벽을 무너 뜨리는유일한 방도는 북극가 끝임없이 휘젓고있는 무력외한 공산화 통일 즉, 상대방을 말살하기 위한 무력이 아니라 자주평화 이념하에 민족적 변명을 실현하기 위한 넓은 도량과 끈질긴 노력으로 어디까지나 평화적 방법으로 대화통용하여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신념을 실현하는데 있는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일제하의 뒷사람의 반치산 활동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어찌 전강호에 메아리친 3.1독립투쟁과 그 산물인 임시정부의 26년간에 걸친피어린 투쟁사에 견줄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엄숙한 마음자세로 만세부르다가 일본 관현에 잡혀가고 생각하고 죽어간 많은 우리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번영하여 다시는 남의 지배를 받는 굴욕의 역사가 없도록 우리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온 내외국민은 북한 공산집단의 허위선전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굳은 의지로 조국의 계속적인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에 이바지하는 일만이 우리 선열들에 대한 보답의 길이 될것이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3.1절 65주년을 맞아 위대했던 우리선조들의 장거를 기리며 고모여러분의 건강과 사업발전을 기원 합니다.

1984년 3월 1 일

주 시애틀 총영사 이 문 수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수입 내역	지출 내역
1. 83년도 이월금 2026.23	1. 사무실 임대료 6개월분 1232.40 (매월 205.40 84년 6월까지)
2. 정기 회비 입금 1184.00	2. 전화사용료 121.99
3. 각계 찬조회사금 1050.00	3. 건축기금 이월 1000.00
4. 84년 광고 수입금 (회비) 450.00	4. 회비 인쇄비 600.00
5. 건축기금 회사금 1000.00	5. 회보 편집비 240.00
	6. 회보 발송료 및 우표 대금 372.50
	7. 경노회 경노잔치 찬조금 150.00
	8. 3.1절 행사비 162.40
	9. 한글라자기 수리비 36.40
	10. 회비 반송봉투 및 인쇄비(3000매) 74.70
	11. 삽외비(주지사 및 시장방문시 선물 2점) 94.20
	12. 크로피 대금 및 기라 99.50
	13. Bank Service Charge 10.10
	14. 현금보관 82.45
	15. 은행 잔고 1433.59
수입 총계 \$ 5710.23	지출 총계 \$ 5710.23

김병관 부동산

□사업체 및 주택
알선해 드립니다.

□투자안내 및 상담환영

□성심껏봉사 하겠습니다.

집 ☎ (206) 745-1367

사무실 (206) 365-4700

킹 스티비디오

NEW

●각종 한국비디오 테이프
●TV 및 VIDEO 수리

KING ST TV & VIDEO
(우와지마야 맞은편)

전화 624-9815, 624-9844(씨애틀)
588-4811(타코마)
504 S King St. Seattle, WA 98104

한인회비 내신분들 ('84년 3월 8일현재)

김 동 조 \$ 20.00	윤 부 원 \$ 20.00
김 종 설 \$ 20.00	Ronald G. Brown \$ 100.00
Stubble Field의한 \$ 20.00	김 정 부 \$ 20.00
김 영 남 \$ 20.00	김 정 해 \$ 30.00
김 성 길 \$ 20.00	한 만 섭 \$ 100.00
김 형 달 \$ 24.00	김 수 정 \$ 20.00
JOHNY BAEK \$ 20.00	이 석 복 \$ 20.00
이 용 호 \$ 20.00	김 용 준 \$ 20.00
김 운 핵 \$ 20.00	Lea J. Armstrong \$ 100.00
장 부 관 \$ 20.00	김 전 속 \$ 10.00

찬조금

신 호 범 \$ 1000.00

3.1절 행사 찬조금

장 부 관 \$ 30.00

한국의 날 행사 찬조금

한국의환은행 시애틀지점 \$ 300.00

광고비 내신분들

시애틀 무역관 \$ 120.00
린우드 인쇄소 \$ 70.00
Lee's 해권도장 \$ 50.00
Century부동산 \$ 30.00
선 크로피 \$ 40.00
사천 반점 \$ 70.00
조병규 치과 \$ 70.00

특별찬조 하신분들

1. Prolitho INC.(김 길량)에서 1월분 회보 2,500부(\$1,316.22해당)을 인쇄하여 한인회에 찬조 하여 주셔서 전 고민들에게 배부하게 되었음.
2. 한인회보 1,2월호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필요한 주소 성명 테이블(209.75해당)를 김 동호 씨께서 찬조하여 주었음.
3. 박 화량(박 호철)에서는 3.1절행사 현판 및 식순등을 써서 기증하였음.

『 한국의 밤 』 행사안내 말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존 스펠만(John Spellman) 의싱은 주 지사와 찰스 토어 시애틀 지사가 1984년 4월 28일을 한국의 날로 선포함에 따라 우리한인회에서는 미국정부및 정치 경제사회의 각기관, 단체의장들을 비롯한 주요인사들과 고모어러분들을 모시고 서로 만나 대화와 사고를 통하여 전통적으로 이어온 한미양국간의 우호를 증진시키고 유대를 강화하며 양국민간의 우정과 동반 각각 관계를 보다 돈독히하며 정치 경제사회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조국의 국위를 선양함과 아울러 시애틀 의싱은 한인 커뮤니티의 단합된 힘을 보여 우리 고민들의 권익을 찾고 지위를 굳건히 하는 바탕을 굳히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백들이지는 관시에 고모어러분들께서 공사장에 다방하신중에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모임의 뜻과 자리를 빛나게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작년의 경험에 비추어 특별히 고모어러분들의 도움을 부탁기 위하여 미리 아뢰는것은 행사 당일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1) 입장권은 현장에서 일체 판매하지않고 또한 (2) 좌석 배정도 사전에 하지않고 임의 좌석 오복하여 당일 행사를 자율적이고 자연스럽게 진행시켜 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어 행사주최국면으로서의 성숙한 사고수준을 과시하십시오 도움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사 내용

일시 : 1984년 4월 28일(토)오후 6:00
 장소 : RED LION INN, SEA-TAC (사학 공항 앞)
 18740 PACIFIC HWY SOUTH
 SEATTLE, WA 98...

입장료 : 1인당 \$ 20.00

입장권 구입요령 :

1. 한인회 이사, 임원을 통하여 직접구입
2. 시내 한국식품점, 한국음식점에서 구입
3. 우편구입 :

업 도 송 이사장댁 13631 SE 235 th. St. 631-5863
 Kent, WA 98031

홍 인 표 부이사장댁 2535 Medina Circle 454-8550
 Bellevue, WA 98004

이 손 모 부회장댁 28805 8th Ave S. 624-7610
 Federal Way, wa 98003

1984년 3월 일
 시애틀 의싱은 한인회
 회 장 오 계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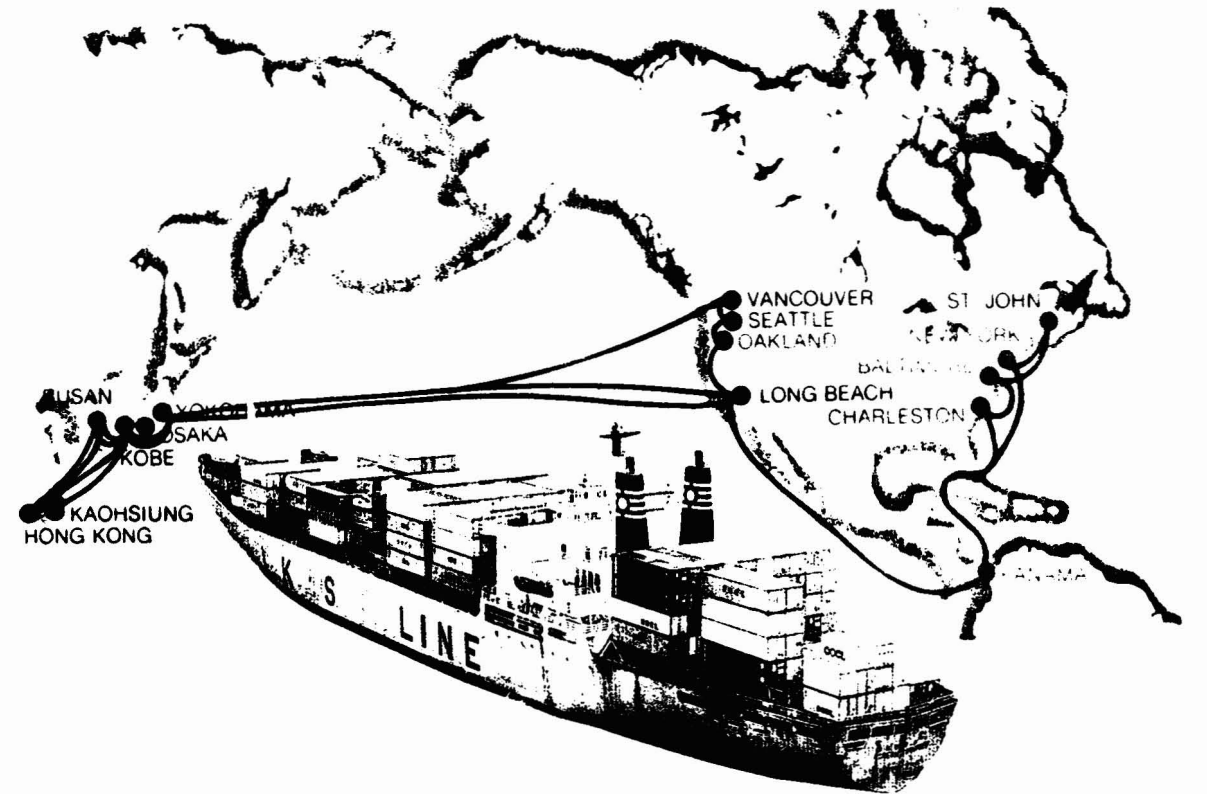
한국 해운의 기수

K.S. LINE

- 수출입 화물
- 귀국 이삿짐
- 창고업
- 통관업무

미국과 동남아를 6일 간격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귀택의 이삿짐은 부산·서울 편리한 곳에서 14일만에 통관, 찾으실수 있습니다.



(206) 625-1960

2121 Fourth Avenue Suite 1520 Seattle WA 98121



大韓船洲(株)

KOREA SHIPPING CORPORATION

- 롱비치 지점 (213) 437-0431
- 뉴욕 지점 (212) 422-5959
- 샌프란시스코지점 (415) 777-2600
- 시카고 지점 (312) 693-7500
- 휴스턴 지점 (713) 227-3261

- 벤쿠버사무소 (604) 669-2439
- 포틀랜드사무소 (503) 228-9818
- 볼티모어지점 (301) 727-3550
- 찰스턴지점 (704) 365-4582

한인회 활동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시애틀 시장과 경찰서장 년례 방문

한인회의 임원, 이사들은 이 총영사님을 대동하고 지난 3월 9일 시애틀시 시장과 경찰서장을 방문하였다. 이 방문의 목적은 시애틀시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인교민사회와 행정체제인 시와의 상호 이해와 협조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돈독한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교포사회의 성숙과 지위를 향상케 하기 위한 년례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사, 임원단의 간단한 소개에 이어 오 계회 회장의 시애틀 교민사적 안목에서 3만여명 급증한 교민사회는 대내적으로 안정과 충실을 기하여야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한인교포들의 활동의 기회를 넓혀 일반 미국사회와의 다리들 만들어 주어야 하는 두개의 과업이 크다는 한인회 활동의 일반 방향설명에 이어 환담이 있었는데 140여개의 한인중소기업체에 대한 정보들 들은 토양 시애틀 시장은 자신의 관찰아래 소규모 기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한인교포 대표자를 참여시킬것을 제외하고 협조하여 줄것을 다짐하였다.

Royer시장은 이번 기회에 한인교포사회에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한국의 최근의 발전상 특히 경제적인 발전과 수출의 급진적 증가는 자신의 관심을 끌었다고 하고 시애틀항에 들어오는 한국상품의 양에도 늘었다고 하였다. 이 문수 총영사는 시애틀 지역과 한국이 빈번한 교류를 가지게 되고 있으며 계속 관심거리라고 하였다.

이어 일행은 Fitzsimons Patrick 경찰서장을 예방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년도 한인 경찰관을 채용하여준데 대하여 신로범 구회장이 고맙다는 인사말 대신하였으며 일행은 한국인의 존엄정신을 계속 향상할것과 치안에 협조할것을 말하고 한국인 사회의 선도를 부탁하였다.

경찰국장은 이에 감사말 표시하고 한국교포사회와 한국민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였다. 특히 경찰국장은 한인교포사회를 이해하고 싶다고 하고 점심차식을 마련하여 장시간에 걸친 환담에서 한국인의 일반적 성격, 한국인의 가정 전통과 그에 관련하여 가지는 가치관, 지금 한인교포사회 내의 여러가지 문제점등에 대하여 자세한 고를 기울였다. 특히 소수민족 범죄를 다루는 경우 반듯이 번역자 및 민족의 문화적 요인을 설명하여 주고 이의 참사를 배려하여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그러한 인적 자원 제공에 협조하여 줄것을 한인회에 제의 하였다.

이사및 임원 공동회의

1984년 2월 29일 오후 7:30 부터 한인회사무실에서 금년들어 첫번째 이사및 임원 공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동회의의 중요도의 안건은 지난 2월16일 회장단 일행이 존 스펠만 워싱턴주 지사를 예방하였을때 주지사가 4월 28일을 한국의날도 선포하였는바 이에 따른 한국의밤 행사계획의 구체적시행방안을 논의 하였음. 보다 더 규모있고 의미있는 행사를 치르기로한 한인회는 빈틈없는 사전계획을 수립검토히는동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것에 합의하고 시행에 들어감.

* 한국의 밤 행사 안내 광고 참조

3.1절 기념 행사거행

제 65회 3.1절 기념행사가 1984년 2월25 일 오전10:00 한인회 건물 강당에서 이 문수 주시애틀 총영사등 많은 내빈과 교포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애국가 봉창및 오 계회 회장의 기념사와 총영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은 봉남 청년부장의 독립선언문낭독후만세 3항을 끝으로 기념식을 마치고 간단한 다과를 나누고 영화상영이 있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영희 목사님, 이창수 목사님, 은한두 목사님, 한상국 목사님등이 참석하여 주셨고 한인장도교회 (박영희 목사님시무)에서는 교회전용 차량편으로 많은 매번들이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한인회장 기념사및 이 문수 총영사 축사말도 게재하였음.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웁시다!



84년도 회장단 및 이사·임원
JOHN SPELLMAN 워싱턴주 지사
예방 (84·2·16)



시애틀시장과
이사진 및 임원들
(84·3·9)



한인회 이사진 및 회장·임원들이
경찰서장 방문 (84·3·9)



엔진의 윤활

엔진은 사용함에 따라 각부분의 마멸또는 열화, 소모등으로 그성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동을 보완하여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일면의 작업을 혼연이한다.

일반적으로 엔진의 윤활은 엔진주유부의 기계적 마멸, 연료공급계의 성능 저하, 전기장치 특히 점화장치의 열화 및 소모등에서 발생하는 결과도 평소엔진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고로 정기적으로 점검, 조정, 조립또는 부품의 교환등으로 엔진의 정상적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엔진윤활의 순서를 요약하면

1. 인젝터크 매니폴드의 배플에스
2. 실린더헤드볼트나 인젝터크 매니폴드볼트의 조임상태 점검
3. 실린더 핀트레션 에스는
4. 배터리의 점검필 시험
5. 이그니션 계통의 점검필 시험

그러나 이와같은 것을 혼연할때마다 하는것이 아니고 엔진에 큰 이상이 없는한 카르베이어의 에어클러이니니 또는 유엔필터, 점화계통에서 스파크 플러그, 스파크플러그 케이블, 디스트리뷰터캡, 로터, 포인드, 콘덴서등의 성능을 점검하여 제사용 또는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

오사이 공제문제를 고려하여 점화전압의 상승과 임팩트 로딩 이그니션 장치로 부품이 간소화 되었고 성능면에서 대단한 발전을 보았다.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 판넬임계치를 장치등을 사용하여 운전조건에 따라서 제임플은 상승해가 작동등으로 조정되어 연료의 절약과 매기 공해를 줄이는 것도 있다.

참고로 몇가지 시험방법을 기술한다.

1. 배플에스
엔진을 가동하여 정상온도에 도달하게한다음 인젝터 매니폴드의 배플 소스에 배플 제거자를 연결시켜 제거가 나야하는 눈금을 읽는다.
이시험 결과로
가. 카르베이어의 조정상태
나. 이그니션 아이밍의 노후

다. 벨트장동의 상태
라. 실린더 압축압력의 누설을 알아낸다
그러나 이시험 결과 분석은 긴급 계 제작용의 분석결과에서 존재하나 실제엔진에서는 그대로 해석되는일 임된다. 왜냐하면 눈금이 하나의 결함에만 국한되는일은 드물고 대개 두세가지의 결함이 복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2. 핀트레션 에스는
엔진을 가동하여 정상온도에 도달한다음 엔진을 정지시키고 이그니션로일의 + 단자 또는 디스트리뷰터 캡의 1차회로 쪽의 전기적 연결을 끊어 차단시키고 모든 스파크플러그를 매너다움 카르베이어의 로크벨트와 드로틀밸브를 완전하고 핀트레션 제거자를 스파크플러그 구멍에 안전이 걸착시켜 1번 실린더로 부터 안전운전핀 제거하여 스파킹모터를 회전시켜 압축압력을 전면계 압축압력 의 압력과 최종압력을 측정하여 차액도 구실린더를 측정 기록한다. 크랭크 회수는 각실린더마다 4-5회 정도로 한다.

결과 분석
가. 정상상태 : 모든 실린더의 압축압력 측정치가 제차 회사의 규정치의 90%이상이고 구 실린더간의 압력의 차가 10%이내이면 정상적인 엔진이라한다. 그러나 규정치의 10%이상의 압력차이가 있다고 해서 엔진을 재생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25%이상 의 차이가 있을때 재생한다.

나. 압축압력이 규정치보다 높을때 : 10%이상 높을때는 연소실내에 카르베이어의 10%이상의 실린더 헤드룸 때에서 차를 제거해야한다.

다. 벨트의 불량 : 첫 행정의 압축시험에서 압력이 낮고 계속해서 낮은 상태를 나타내고 특히엔진오일 1000정도 스파크플러그 구멍에 넣고 압축시험을 다시 했을때도 계속 낮은 상태를 나타낸다.
라. 실린더 벽이나 피스톤링의 마멸또는 파손 : 첫 행정의 압축시험에서 압력이 낮고 계속해서 압력이 낮아거나 정상압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외에서와 같이 엔진오일을 넣고 압축시험을 했을때 압력이 정상상태로 뚜렷이 올라간다.
마. 헤드 게스결의 값 : 서로 이웃한 실린더의 압축시험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며 오일을 넣고 압축 시험을 했을때 압축압력이 올라가지 않는다.
위의 두시험은 엔진의 상태를 판단할수있고 더욱 기간 단한 엔진으로 해결할수있는지 아니면 엔진을 분해하여 재생하여야 하는지를 결정지을수 있기때문에 이상이 있는 엔진에서는 제일먼저 시행해야 한다.

좀더 심층학업 또는 계속된 엔진은 극량한 압축압력과 극량한 윤활계스(계속린과 공기)와 극량한 시기에 정확한 불꽃이 이루어 질때 엔진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바 이중한가 지라도 조건에 미흡하면 엔진가동이 비정상 상태가 되거나 심한한 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간단한 윤활과정을 적는다.

- 준비물 1. 자동차 제작회사의 윤활제
2. 부속 : 스파크 플러그, 스파크플러그 케이싱, 디스트리뷰터캡, 로터, 포인드, 콘덴서.
3. 계기 : 1. 드레싱, 에코미어
1. 아이밍 락이온

작업순서

1. 스파크플러그 케이블과 스파크플러그의 연결된 볼트를 풀고 스파크플러그를 풀어낸다.
2. 디스트리뷰터캡을 열고 로터를 빼낸다.
3. 포인드와 콘덴서를 떼어내고 세척으로 교환하여 포인드 연결을 제작회사의 규정에 맞게 설치한다.
4. 이때 디스트리뷰터캡의 점화점에 브레이크로인드압의 미량이 만났을 상태에서 간격을 맞춘다.
5. 로터와 디스트리뷰터캡을 새것으로 교환하여 설치한다.
6. 새 스파크플러그의 점지간격을 규정대로 맞춰준다.
7. 스파크플러그 케이블을 검사하여 딱딱 1년부러져서라도 디스트리뷰터캡과 스파크 플러그사이를 교체해야한다. 이때 케이블의 심안핀이나 놓여있는 금속이 다.
8. 작업중 다른곳에 지장을 주지않는가 다시 점검을 시용하여 정상온도에 도달하도록 기다린다.
9. 드레싱액과 미터를 연결하고 웨어링(드레싱액)을 관하여 구멍치에 맞도록 다시 포인드 간격을 조정한다.
* (1) 포인드 간격이 틀어질수록 엔진은 거칠고 간격이 넓어질수록 엔진은 작아진다.
(2) 또한 간격이 좁으면 냉각은때에 비해서 과열하기가 빨라진다.
9. 엔진을 가동하여본다. 이때 바늘이 움직이는 정도를 살펴본 후 2° 이내의 움직임이던 정상이다.
10. 디스트리뷰터에 연결된 배플소스를 뽑아 오스를 마는 다.
11. 아이밍 락이온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눌러 아이밍마크를 비춰본다. 이때 아이밍이 구멍치에 맞지않으면 디스 트리뷰터 고정을 풀고 이안하고 디스트리뷰터자세를 조 금씩 좌우로 돌려 아이밍이 구멍치에 맞도록 조정한다 다음 다시 고정을 풀고 조인다.
12. 디스트리뷰터에서 뽑아낸 배플소스를 다시 연결한다.

13. 시운전을 해본다.

이상이 보통이야기하는 엔진윤활과정이다. 그러나 75년도 이후에 생산된 미국계 차량은 거의가 임팩트 로딩 이그니션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포인드나 콘덴서가 필요하지 않기때문에 간단하고 드레싱액도 속성할 필요가 없거나 속성이 불가능한 엔진인것도 있다.

또한 스파크플러그 케이블이 어떤 차종에서는 전보보다 더 높은 8mm 짜리를 사용하며 취급에 주의할 요한다.

* 참고로 꼭 알아두어야 할점을 몇가지 나열한다면

- (1) 75년 이후에 나온 G.M.C. 계열회사에서 나온 차량의 카르베이어에 더럽다고 해서 청소겸 스트레이크를 사용하면 에어 클러니를 절대 사용하지않는다. 어떤종류의 것은 카르베이어에 있는 게스킹을 녹여 제거하면 새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 (2) Ford회사 차량중 임팩트로딩 이그니션 장치가 있는차에서는 절대로 스파크 에스를 사용하지않는다. 스파크 에스를 하는동안 디스트리뷰터내부에서 강한 스파크로 다른 부품에 유스메머드 등에 손상을 줄수 있다.
예) V-8엔진에서 NO 1과 NO 8의 6기엔진에서 NO 3와 NO 5 V-6 엔진에서 NO 1과 NO 4 4실린더엔진에서 NO 1과 NO 3.
(3) 75년도 이후의 G.M.C. 차량에서 디스트리뷰터 캡 디어 로머서 미비함을 권대로 그라운드 시켜주었다.
점지하면 임팩트로딩 모듈이 손상되기 쉽다.
(4) 크라이슬러 회사 차량의 임팩트로딩 이그니션 장치에서 웨어링 미치스터를 교환할때 권대로 끼우지 말고 연결 하라. 동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차용기회로 미두고 오사이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되는 임팩트로딩 이그니션 장치에 대하여 좀더 설명하겠다.
제택사의 포인드에 해당되는 G.M.C.의 모듈, FORD의 모듈베이어 유닛, 크라이슬러의 캡코를유닛, 등에 이상이 있으면 정비 시동이 되지 않으므로 시동이 되지 않는차를 계속 고장정하던 때부터과 안전 장치때때로 유해하다.
엔진에 윤활은 가장순간 같은면서도 가장 어려운것이 바로 보겠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다음은 보텍이크에 대해서 귀를 예경이다.

YAMAHA KAWAI STEINWAY SCHIMMEL
세계피아노사
11325 Roosevelt Way N.E.
Seattle, WA 98125
365-5540

정문인보험 FARMERS INSURANCE
9525 AURORA AVE. N.
SEATTLE, WA 98103
(206) 523-9111 • (206) 588-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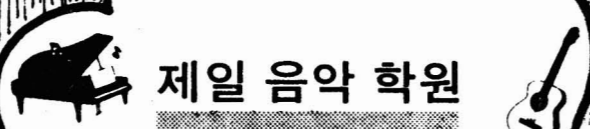
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모든 애경사에 전화만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꽃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JTD
디오인스플랜 824-5920, 밤 243-5180

사업체 매입시 유의할 점 (2)

- E. Vocational Aptitude (적성검토)
 적성이 맞아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다. 먼저 주인이 잘했다고 당연히 사업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서는 안된다. 그 껍데기에 자신이 없으면 현지 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서슴치 말것이며 (간판 star 고용) Business 가 drop 하기 시작하면 원인을 분석 개선하고 빨리 서둘러 정리하는 것도 손실을 막는 방법이다.
- F. Return on Investment (투자회수)
 중소기업에 투자한 금액을 몇년에 회수할수 있어야 Good Invest 나 하는 문제는 정평이 없는듯하다. 경험으로 보아서 년 20% 회수되면 100% Return 이 되니 바람직하다.
- G. Working Capital (운영자금)
 운영자금을 고려치 않고 사업을 인수하면 쉽게 도산하게 일쑤다. 경험으로보아 Service 업체라면 2-3개월 정도의 고정비용 (Example, 임금 Rent utility) 를 Corer 할만큼 여유가 있어야하고 Inventory도 1개월 정도 매상액을 확보함이 좋다. Cash down 할수 있는 돈만 가지고는 각종 Deposit (Example, Rent, Escrow fee, Utility 등) 이 필요하고 나아가 Sales tax도 내야하니 소요자금 산출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H. Preferred Existing Business (가급적 기존 업체들)
 요즘처럼 권리가 비싸서 새로히하고 지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는 고포가 많은것 같다.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기존업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는 일이 현명하다. 통계상으로 보아 새로시작한 업체는 2-3번째 Owner 가 성공한 경우가 많다. "내 경우마는 예외" 라는 자부심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현재 많은 고포들이 새로 시작해서 손해본 경우가 허다함을 상기 시키고 싶다.
2. 계약상 주의해야 할점
- A. Contingency 와 Time Limit (조건부 계약)
 계약당시 Business Recorder 와 현존 Lease 계약서를 보고 확인, 송납할것을 - 일정기간내에 - 조건으로 함이 현명하다. Earnest Money (보증금) 을 버리는 경우 각종종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빠져나올수가 있다.
- B. TAX Consequence (TAX 상담)
 사업체를 살때 전체금액 (Total Consideration) 을 어떻게 할당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시설 장비로 많을 할당하면 감가상각에 편 도움이 되지만 우선 Sale TAX 를 현금으로 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시설 장비뿐 아니라 Lease Hold Improvement 도 감가상과할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Allocate 함이 상례이다.

- (1) Trade name & good will \$ ____
 (2) Lease Hold improvement & interest \$ ____
 (3) Covenant not to compete \$ ____
 (4) Fixture, Furniture & Equipment \$ ____
 (5) inventory
- C. Security note 와 Existing note
 (1) 담보증서 작성시 "Due on sale clause" 가 가급적 없도록 해야하며 이런 구절이 있으면 이다음에 팔기가 대단히 어렵다. "Due on Sale" 이란 이다음에 해당 사업체를 팔때 Seller 가 Carry 한 Loan Balance 를 전부 Pay off 해야 한다는 것임으로 Attorney 와 상의 함이 현명하다. 위와같이 조항이 없으면 차후 "Well Qualified Buyer" 에게 팔경우 note Holder 가 응해야 하기 때문에 Sale 이 쉽게 이루어 질수 있다.
 (2) 업체 인수시 기존 note 들 떠맡은 경우 (Assumability) note Holder 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점을 유의해야 한다. Assumption Fee 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note 조건을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본인의 "Financial Statement" 와 "Resume" 를 잘 작성하여 Land Lord 와 note Holder 에게 제출함이 현명하다.

(다음호에 계속 문의전화 233-8949 Sam Yun)



제일 음악 학원

- 시애틀 최초로 개원, 신학순 10명 1개월 무료지도 (월 4회)!! 자녀 교육?
- 피아노, 각종악기, 성악개인지도.
- 심인키타-초보자 단기완성
- 생활음악, 복음성가, 교회 반주자를 위한 특별지도
- 완벽한 지도와 유능한 교수진 (한·미인)
- 출장지도, 교통 편의 가능성.

원장 김 세 만

367-2273 (FOR-CARE)
 3102 NE 145 St. Seattle, WA 98155

교포 사회

소식 및 동정

시애틀 한인 경노회

시애틀 한인 경노회에서는 지난 2월 18일 오후 7시부터 한인회 건물강당에서 마은고민및 경노회원들이 물인 가운데 고민회안및 경노회 밤 잔치를 성황리에 배편바있으며 김동조 경노회장은 많은 협조와 지원으로 경노회의 발전에 공이 큰 신 호범씨에게 '84년 2월25일 감사패를 전달한바있다.

한양 대학교 동문회

재 워싱턴주 한양대학교 동문회에서는 1984년도 춘계 동문회 모임을 오는 3월 31일 오후 6:00 Lynnwood 바베큐 Center (3828 196th S.W. Lynnwood, Wa (206) 771-3700) 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부부동반하시어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축우회 (장년 축구 대회)

시애틀 축우회에서는 제 2회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장배 정할 장년축구 대회들 아래와 같이 개최함.

- 일시 : 1984년 5월 12일 (토) 오전 9시 (어버이날)
 장소 : High Point Play Field (변경할수 있음)
 참가비 : 없음
 시상 : 1등 한인회장배 및 기념품
 2등 스포츠팀 기념품
 3등 스포츠팀 기념품
 동의 참가로 스포츠팀 기념품
 참가대상 :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인으로서 30세 이상 (1955년생 기준)으로 구성된 각단체및 기관.
 경기진행 : 전후반 각 25분으로 하며 휴식시간은 10분이며 토너먼트로함.
 참고사항 : 참가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206) 937-0378.

DENTIST

치 과

PHONE 778-0707

RONALD D. CANTÚ D.D.S.

치과의사 로날드 D. 켄투

6226 BUILDING SUITE 2-A
 6226 196TH S.W.
 LYNNWOOD, WASH. 98036

이 광고를 지참하시는 한인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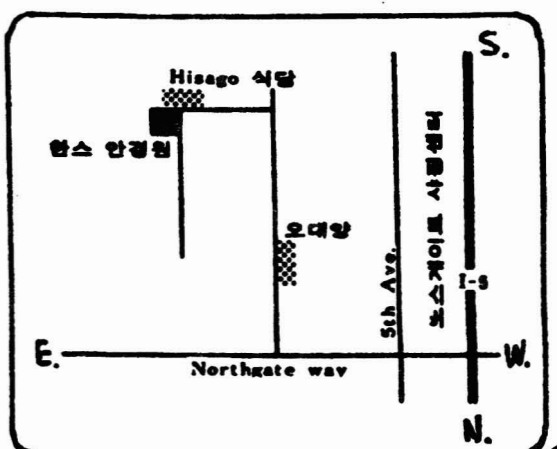
15%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15% off

한스 안경원

- 안과 처방에 의한 안경 및 콘택트 렌즈
- Appointment에 의한 정확한 시력검사
- Medicare 및 직장건강 보험의 vision care service
- 품질을 보증하는 고급안경테 및 렌즈

543 NE Northgate Way Seattle, WA 98125
 (B) 363-5007, (H) 362-8330



나가는교회와 나가주는교회

워싱턴 한인 루터교회 김동진목사

외국에 산재해있는 한인 교회를 가르켜 '고토교회' 혹은 '이민교회'라 불려오고 있는듯 싶다. 어떻게 불려져든 간에 다른나라는 몰라도 유독 미국의 경우만은 교회가 세워지는 동기부터가 아의보다는 자의에 의해 세워지는 경우가 더 많았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말하는 아의란 의리는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자의란 전혀 그런 영적 의미보다는 손전인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서 별런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정략수단의 법적인 방편으로 전락되는 사례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솔직히 지적하고 싶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한인 교회의 실상이 아니라 이민정책의 혜택을 특권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때 적어도 이민정책이나 이민정책의 공헌이 그만큼 컸었음을 강조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겨진 이민교회들이 어떤 양심을 먹고 있는지가 큰 문제이다. 필자는 이것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교회들 가르켜 나가주는 교회라 부르고 싶다. 그것도 그럴것이 교회구성 인원부여가 일체로 실권 인연으로 이어져 우선 법적으로 요구되는 인연수에 맞춰져서 이리저리 저리저리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끔 되는 사례가 비일 비재 하게 된것이다. 이것은 인연으로 맺어진 인연 이거니와 또다른 특이한 예로는 교회적분과 관계된것으로선 직분에 얽매어 겸사로서, 장노로서 책임감 할수 없이 다니던 교회니까 싫으면 그만 다니지 하는 광박감에서 교회들 출석하다보니 신앙은 상실되여 그의 신앙 양심 까지 확인받게된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민정책의 나가주는 교회라 참 교회이며 또 이민교회에 교인이 참교인 구실을 다할수 있는 지 자문해 보고 싶은 것이다.

교회란 어디까지나 사랑의 공동체로서 "너희가 내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자유를 지녀야만 하는것인데, 교회들 이민정책으로 피동적인 자세도 나가주다 보니 더 자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한다면 이는 교회의 참 의미와는 상치되는 일이 아닐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 출석은 구속된 모든 세

속적인 울무에서 벗어나고자함인데 도리어 그 울무에 부어 욕을 때려다 띄워 버려 버리는 결과를 물고왔으니 그런욕을 그대도 두고 있는 이상 그 마음에 참영안은 가실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민 나가주는 신자들이 초신자들 가운데 있거 보다는 오히려 오랜 교회 생활을 했다는 신앙 경력이 많은 신자들 가운데 더 많음을 감안할때 교회에 출석함으로 인하여 도리어 무거운 멍에만을 더 질머지게끔 한 원흉들을 장본인인 내가 꼽아 드린 셈이다. 그렇다면 전혀 그 해결책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여기서 돋보이고 싶은것은 곧 나가주는 적극적인 심정으로 교회 출석의 애도를 바꾸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교의 진수성을 바로 깨달아 "나는 까닭이 있어서 다니는 교회야" 하겠는때 그런 교회야만 참 교회다운 교회의 면모를 갖춘 교회일것으로 안다.

흔히 교회의 본질이 일어나 서로 갈라지는 사례며, 그우끼리 교회일로 시비가 벌어지는 일들은 거의가 다 나가주는 교회에서 야기됨을 말해주고 있다. 그이유는 교회들 나가주다보니 자기를 위해서라기보다 누구를 위해서 임으로 항상 대립을 받고 지 하는 자세로 남을 대접할 모를뿐 아니라 도리어 이만큼 내가 열심을 보여 주었으니 우선 내가 받을 보상이 그 좌이건인가 하는 데가 부어 생각게 되어 사람들앞에 나타내는 것만을 농사로 자기고집, 자기주장, 자기 열기가 더욱 왕성해지는 이것부터가 잘못된 사고라 하겠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설사 이민 교회가 "나가주는 교회"였다 할지라도 금년부터는 "나가는 교회"로 교회에 출석하는 애도부터가 바뀌어 지기 바란다. 완전 무결한것이 없다고는 하나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짐이란 기대하는 만큼 고상하고 값진것이라 생각한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새해와 더불어 교회내 어디까지 부조리한 것들이 말끔이 씻어지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새해는 새무대에 담겨져야 하겠기 때문이다.

끝.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린우드 TOPrin 인쇄소

- 청타시설완비, 각종인쇄물취급
 - 명함, 주보, 주소록, 각종간행물 제작
 - 청타란? (한글타자는 모양이없고 사진식자는 값이 비싸고, 이런문제를 청타가 해결해드립니다.)
- 5907 196TH S.W. 린우드 ☎ 775-7667

부활절 에세이 (ESSAY)

허상의 상대는
실재의 공간 둘일까?
그 시간과 주기가 같다고 하면
그 시간은
각자의 공전속성과
관측방법이다른 모양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루한 시간들이 없을것이요
나는 이미 반 이상의
저 가속을 받은 시간들만이
남아 있지 않을까?
이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흠, 돌과 천속하여지는
연유를 알게된다.
이시간들은 반복됨이 없이
한번 지나면
영원히 살아지는것이요
모든 사물과
공간에는 상대가 있는데
이시간에는 상대가 없다.
인간사의 시간에는 절대적
보상이 없는것이요
너무나 많이 산재된
허상의 시간들
계체의 한인간이 그어할전대
연립된 인간속의
그 무수한 시간들은
마구 가속을 이어가서
결국은 방향없는 공간에서
영원히 정지하고
말것이 분명하다.
행적여 가속을 잃기전
허상의 트랙(Track)을 떠나오
우린 모두 흠, 이아니오
오직 영원과 부활의 흠,으로

최 모 경

시애틀 한인침례교회 집사
전 한국장로시인 동인회원



시애틀

센츄리부동산
(206) 223-8949
400 BOREN AVE. SEATTLE, WA.

SAM YUN: 878~3647 이 양 남: 363~0443
SUSAN KIM: 392~8535 MAX LEE: 881~6274
김 일 영: 874~4452 고 유 진: 771~3229

- (세탁소)
(1) 245,000 + 제고 65,000 D/N월매상 19,000 이상
(PLAN + AGENCY + GAS SALE)
(2) 495,000 + 제고 95,000 D/N 월매상 23,000
건물포함한 가격임 (EVERETT)
- (Fish & Chip - 6일영업 10 - 8PM)
79,000 + 제고 35,000 D/N 월매상 ; 75,000
Lease 전망아주 좋음
- (고층건물내 식당 - 5일 영업)
175,000 + 제고 7만 D/N 월매상 17,000
- (GROCERY + GAS)
199,000 + 제고 (2만)월매상 45,000 이상
게스 Sale 12만 꺾은 10만불 다운
- (Coffee Shop - 5day)
89,000 - 45,000D/N Super Location



FEDERAL WAY

LEE'S 태권도도장



사범 이정언
월요일~금요일 4:00~8:00
토요일 10:00~1:00

※ 차편가능 (일부지역)

31405 18th Ave S Suite #5
Federal way WA 98003
☎ 839-3055 (아줌마상회와 대한여행사연)

Center Oriental Grocery & Gift

중앙식품

- 한국, 일본식품 ● 선물, 일제그릇 ● 싱싱한 야채류
- 신선한 생선 및고기류
- 숙주나물 ● 각종 밀반찬



● 영업시간 일주일내내 **762-5620** ● 9 A.M. - 9 P.M.

9841 - 15th Avenue S.W.
Seattle, Washington 98108

南大門飯店

SOUTH GATE CHINESE RESTAURANT



- 북경식 중화요리
- 단체, 연회, 환영

영업시간
일~수요일 11시~오후9시
목~토요일 11시~오후10시

(206) 248- 2250

15859 Pacific Hwy Seattle, WA 98188

(시택 공항앞 : 160가와 Pacific Hwy 코너)

시애틀 한인학교 신입생 모집

시애틀 한인학교는 오는 2월 3일을 기하여 그 과정을 개편하고 또 학교수업일시를 금요일 저녁 7:00시 - 9:45분으로 변경하여 새학기부터 시작하고 신입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학부모님의 이용을 권합니다.

변경된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9:45)
장소 : 한인회 사육실 건물 (2611 125th N.E. Seattle)

교과목 내용:

일반과목

- | | |
|---------------|---------------|
| 1) 한국어 회화 | 3) 한국어 그전투용 |
| 2) 한국어 읽기, 쓰기 | 4) 한국 무술(예권도) |

특수과목

- | | |
|------------|------|
| 육시원, 국민학교생 | 중고교생 |
|------------|------|

- | | |
|--------------|-------------|
| 1. 한국 음악 | 1. 한국역사학 습관 |
| 2. 한국그전 이야기 | 및 가치관 |
| 3. 한국문학 영학감상 | 2. 시애틀 북돋기 |
| 4. 한국 공작 | |

기아 본교의 특수 활동:

1. 본교 학생은 한국외국학교 PenPal교실을 하며 한국어의 읽기, 쓰기, 회화 등을 배운다.
2. 본교는 시애틀 지역사회의 문화활동에 참여 시킴으로서 활발한 교과정을 제공 한다.
3. 본교는 지역사회와 유명인사를 초청함으로써 교과내용의 질을 높인다.
4. 본교는 부모의 학습참여를 지도하고 참여를 함으로써 학생의 개별지도와 높이고 학습의 효과를 높인다.

이상의 한인학교 지원에 대하여 더 문의하고 싶으신분은 다음의 전화에 연락하여주세요.

전화: 522-2494, 365-4128, 747-7452

린우드 TOPrin 인쇄소

- 청타시설완비, 각종인쇄물취급
 - 명함, 주보, 주소록, 각종간행물 제작
 - 청타란? (한글타자는 모양이없고 사진식자는 값이 비싸고, 이런문제를 청타가 해결해드립니다.)
- 5907 196TH S.W. 린우드 ☎ 775-7667



하바 하바 비데오 및 사진관

비데오테이프 대여

각종 한도영화 · 연속극 · 시크 · 코메디!
및 다양한 프로

존경하는 교포시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83년도에도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돌아오는 새해에도 지속적인 지도 원달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 출장 촬영 환영 ●

결혼 · 약혼 · 돌 · 회갑사건
영주권 · 여권 · 시민권사건
각종연회 및 파티사건예약
반응입니다.

5610 SO. YAKIMA AVE. TACOMA, WA. 98408

TEL: (206) 475-6226

워싱턴주 12개 중고등학교 :

국내적 모범학교 당선외해 추천되다.

워싱턴주의 12개 중고등학교가 그 학교의 특별한 교과 과정 내용의 우수성에 의하여 국내적 모범학교 선정대상학교로 추천되었다. 미연방 교육국과 각주 문교 책임자와 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미국 전역의 특별한 성공적인 학교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워싱턴주에서는 6개 중고등학교와 6개 중학교를 선정의 대상으로 추천하였다. 이들 학교는 전 미국내의 다른 주의 학교와 겨루어 모범학교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금번 선정은 학교교육의 효율성 요인과 학생의 성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업목표,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 학생 학업향상의 책정병도, 최저학력고사 및 학생 성적평가 고사, 학생의 학업정도 향상 경쟁에의 참여정도, 교사의 효능성, 그리고 지역사회 협조등의 요인을 근거로 선정된 것이다. 이 중에서 Seattle에 가까이 있는 학교는 :

1. Charles A. Lindbergh 고등학교, Renton에 소재하며 광범한 교과과정으로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을 고무하는 특성을 가짐
2. Redmond 고등학교, Lake Washington School District에 소재하며 영어, 수학, 사회생활, 외국어 분야의 강조와 효과적인 교과정을 가지고 있음

3. Curtis 중학교 : Tacoma 에 소재하며 새로운 교과과정의 실시, 교사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적극적인 학부모의 참여, 등으로 특성을 보임
 4. Olympic 중학교 : Auburn 교육청에 소재하며 학교의 교육방침과 철학이 철저히 학생에게 주지되고 학생의 필요를 엄밀히 분석하여 학습을 상·중·하의 학생에 각각 알맞게 실시할수 있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5. Totem 중학교 : federal Way 에 소재하며 높은 학업성적을 요구하며 의사소통의 효과적인 실시로서 학교의 분위기를 개조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 이외의 학교들은 1) Battle Ground 고등학교
2) Colville 고등학교 3) Sumner 고등학교 4) Wilber 고등학교 5) Cheney 중학교 6) Jefferson 중학교 7) Omak 중학교 이다.

이와같은 주와 미 연방정부의 우수한 중고등학교 선정 프로그램은 학교간의 교과과정 지식 교류를 원활히 하는 등으로 학교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가 되며 일반시민이 또한 주시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로 명 재 산부인과

美 산부인과 학회 인정 전문의

- 임신·분만
- 피임상담
- 복강경 피임수술 전문 (13년의 경험)
- 각종 부인병수술
- 일반 부인병진료
- 불임조사 및 불임증 치료
- 질 성형수술
- Sexual counseling

Auburn office

833-2580

Federal way office

927-8440

시간제 TUTOR적 근무자를 구합니다

시애틀 교육청의 이중언어과에서는 한국인 시간제 Tutor를 구하고 있습니다.

1. 직명 시간제 Tutor (시간제로 한국인 국민학교 학생을 도와서 가르쳐 주는것)
2. 보수 및 시간 : (1) 일주일에 15시간(하루 3시간)
(2) 1시간에 6불 12전
3. 일할학교 : (1) Kimball 국민학교
(2) Olympic Hill 국민학교
(3) Beacon Hill 국민학교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587 - 3437 이중언어 학생담당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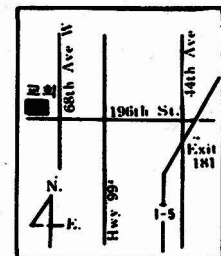
(Bilingual Students Service Section)

Mrs. Kay Mullins 한국학생 담당

씨애틀 한인 침례교회



이국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여기 서로를 위로하는 믿음과 사랑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다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십시오.



- 미국침례교단 소속(American Baptist Church)
- 주일예배 : 오후 1시 ● 삼일기도회 : 수요일 저녁 7시 30분
- 구역예배 : 금요일 저녁 7시 30분 ● 새벽기도회 : 주일새벽 6시

● 교회 : 6915 196th St. S.W. Lynnwood, WA 98036
담임목사 정하경, 교무일동 ☎542-4391(목사관), 771-4662(교회)

린우드 TOP인쇄소

- 정타시선완비, 각종인쇄물취급
 - 명함, 우표, 주소록, 각종간행물 제작
 - 정타판? (한글타자는 모양이없고 사진식자는 값이 비싸고, 이리문제를 청타가 해결해드립니다.)
- 5907 196TH S.W. 린우드 ☎ 775-7667

50년 전통의 Snohomish Bakery

- ※ 생일 ※ 결혼 ※ 회갑 ※ 축하케익 ※ 무료배달
- ※ 다과 ※ 도나스 ※ 단체주문배수

스노호밋쉬 (206) 568-2020
에버렛 (206) 258-1444

Snohomish, WA. 98290



명심보감(明心寶鑑)

1. 우리조상들의 정신적 가치관을 이어온 명심보감에 대해서 현대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명심보감이 지난날 서당에서 주요한 교재의 하나였고 또한 이 책이 비록 평범하나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삶의 예지들(叡智) 가르쳐 준바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2.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도덕이요 도덕을 행하려면수양이 제일 필요하다고 동양의 선인들은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유교적 도덕의 실천이라고 말한다. 마음을(心) 밝히주는(開)귀중한(寶) 거울로서 무엇을강조하고 어떤사상을 역설하였는가 생활의 지침 처세의 금언, 행동의 좌우명 인생의 지혜가 될수있는 다양하게 모아놓은 인생의 수신서(修身書)이다. 현대어로서 쉽고 상세한 주석을 달아서 이해와 보기에 편리하고 쉽게 익혀져 있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40-50대 이상의 세대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서 친히 익힌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되내어보며 자라는 우리의 2세대에게 조상들의 교육의 얼과 철학을 심어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품행없는 선행(維善篇)

子曰, 為善者 天報之以福 하고 不善者 天報之以禍 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착한일을 하는 이에게는 하늘이 복을주고 악한일을 하는 이에게는 하늘이 화를 내릴것이다.

해의(解義)

선행을 행하는 이에게는 하늘이 스스로 돌아보고 악한일을 하는 이에게는 하늘이 스스로 이에 합당한 법을 내린다는것이다. 무릇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자업자득의 이치를 가르치고 있다. 선행은 강요할수는 없는것이지만 인간최고의 이상적 행위이다.

莊子曰, 一日不修善 이면 諸惡이 皆自起 니라

장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루라도 착한것을 생각지 않으면 모든악한것이 다 저절로 일어나는 법이다.

해의(解義)

단하루일지라도 착한일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아니하면 악의 싹이 스스로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인간의 심성을 흐리게 할것이다.

太公이曰, 見善如渴하고 聞惡如擊 하라 又曰, 善事란 須臾하고 惡事란 莫樂하다

착한일을 보거든 목마를때 물본듯이 주저하지말고 악한것을 듣거든 귀머거리같이 하라. 그리고 착한일이란 모름지기 탐을내고 악한일이란 모름지기 즐거하지 말라

(註) 太公. 이름은 姜 呂 尚

* "선으로 악을 갚아라" 하는 프랑스의 속담은 참다운 선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편집실 제공)

KO'S 사진관 & VIDEO

최신장비와 기술로 여러분을 저렴한 가격으로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각종 기념칼라 사진전문>

- ◎백일, 돌, 결혼, 회갑, 각종단체
- ◎여권 및 시민권용 사진
- ◎필립현상 및 인화
- ◎출장 촬영 환영

<VIDEO PRODUCTIONS>

- ◎비디오 출장 촬영 환영
- ◎16 m/m 및 8 m/m 영화촬영
- ◎비디오 테이프 편집 영상, 음향, 제작, 카피
- ◎한국영화,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대여

전화 (206)775-0896

대표 고 광 준

4812 225th Pl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감사의 편지

보일러제조원조합 행정책임자

지난 수년동안 한인 교포의 많은 분들이 보일러 제조 노동조합에 속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여 왔으며 특히 락키드와 하드 조선소는 한인교포 보일러 제조원들이 집중적으로 일을 한 시애틀 지역의 회사였던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800여의 한인 교포들께서 이 두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두고용주들로부터 한인 교포사회가 받는 혜택이 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한인 교포들의 높은 수준의 기술과 헌신적이고 부지런하며 또 착실한 노동으로 위의 두 조선소가 받은 혜택이 헤아릴수 없이 늘었던것은 해가 거듭함에 더욱 밝혀져 왔습니다. 그간 수차례 걸쳐 이같은 반응이 보여왔었는데 금번 보일러 제조 노동조합 104의 책임자로있는 Joseph H. Pilato께서 공식으로 그의 한인 제조원들과 한인교포에 감사하는 서한을 한인회로 보내어 왔으며 한인회에서 이에 응하는 서한을 보내고 계속 한인교포사회와 유대를 갖고 상호협조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조치를 취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Pilato씨의 서한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보일러 제조원 형제 자매 여러분 :

이 기회를 통하여 한인 교포여러분에게 몇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릴수 있게 하여주신 한인회에 사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많은 한국인 보일러 제조원들을 대표하고 또한 같이 일할수 있었던것은 본인에 큰 기쁨이었습니다. 노동조합제104지부의 한국인들은 시애틀 노동조합의 큰 부분입니다. 시애틀의 많은 고용주들은 한국인 보일러 제조원들이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으며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라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여 드리며 더 안전한 작업장을 마련하고 직업의 보장을 더 높이며 높은 노임을 제공하고 건강과 사회보장 제도를 더 확충하며 보일러 제조 기술학교를 통하여 교육적인 원조등일련에 혜택을 더 제공하여 드리고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그간 저의 노동조합을 지원하여 주신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실것을 부락하는 바입니다.

보일러 제조원들의 미래와 한인사회의 미래를 향상시킬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합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March 12, 1984

조셉 에이취 피라토
행정 책임자
보일러 제조원조합 제104지부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BOILERMAKERS, IRON SHIP BUILDERS

BUSINESS MANAGER
623-2013 (PHONE)
JOE PILATO



LODGE No. 104
1829 BOREN AVENUE
SEATTLE, WASHINGTON 98101

BLACKSMITHS, FORGERS AND HELPERS

SECRETARY-TREASURER
623-2876 (PHONE)
March 12, 1984



Dear Sister & Brother Boilermakers:

I would like to thank the Korean Association for allowing me this opportunity to speak to the Korean members. I'm sorry I have not taken the opportunity to communicate with you earlier.

It has been my pleasure to represent and work with the many Korean Boilermakers over the last several years. The Korean members of Local #104 are a great asset to the Local. It is a well-known fact to the Employers in the Seattle area that the Korean Boilermakers are highly skilled and hard workers. I hope to continue working with the Korean community in the years to come to provide jobs, to create a safer work area, to provide protection on the jobs, to provide high wages and complete Health and Welfare Plans, and to provide educational assistance through the Boilermaker's School.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supporting our Union and ask for your continued support in the future.

Together we can make a better future for the Boilermakers and for the Korean Community.

Fraternally yours,

JOSEPH H. PILATO
Business Manager
BOILERMAKERS LOCAL 104

JHP:sam
opeiu#8af1-cio

박화문

각종 표구 액자 전문
서예 수예 동양화 평풍제작판매
각종고급 서양화 특별염가판매

※ 초상화 전화문의환영

각판

한글 한문 영문 아크릴 프렌카드
각종 특수체 및 조각판제작
사무실 **762-5410**
집 **242-6801**
월~토 오전 9시~오후 5시

1515 Roxbery S. W. Seattle WA 98106
(중앙식품 근처)

조병규 치과

시애틀

월, 화, 목, 토(9시~6시)

367-5570
776-8512

페더럴웨이

수, 금(10시7시)

838-3180 시애틀
927-4996 타코마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CULTURAL COLUMN:

CHU-SUK(Thanks Giving Day)

One of the dearly celebrated holidays in Korea tradition would be this day of Chu-Suk which is literally meant the Fall Night. It comes on the fifteenth of August in lunar calendar which is approximately equivalent to the late September or early October in new calendar. It is the night of full moon and has been said that it is the brightest full moon throughout the year. It is the harvest season in Korea and the store houses of the farmers are filled with newly gathered crops and grains. It is also the thanksgiving season and Chu-Suk is the Korean counter part of the thanks-giving day.

The origin of this day would be traced back to the Silla Dynasty, one of the most prosperous and culturally enlightened dynasties of three kingdoms period. The origin of Chu-Suk of Silla originates this day to provide a day for farmers to celebrate their harvest and enjoy the excitement of their success during the year.

On this day, the women held a contest of hemp spinning among several groups in the capital of ancient kingdom. The young men were also divided into a number of groups and enjoyed the contests of varied games and sports. It was enjoyable to see these games, contests and sports held under the bright moon light with the attendance of queen. Since then this tradition has been handed down to the present.

At the same time of enjoyment, it has been a day of thanks giving. Early in the morning, each family observes a ancestral ceremonies to offer the food made of the first harvested grains to their ancestors passed away. It was based on the Korean peoples belief that the ancestors who are dwelling in the spiritual world have continuing concerns to the welfare of their children. The offer of the first

meal means the expression of the respect to the ancestors and of the thanks giving. After which the families visit their ancestors' tombs and clean it and mend the grasses.

This tradition of ancestral ceremonies and of some of the enjoyments held in this day have been handed down until now on. Chu-Suk would be the most enjoyable holidays in Korea society, even today.

Sut-Dal(December 31st)

Sut-Dal comes on the last month of the year, December. It is the last month and also it can be the last day of the year. As normally we do, this is the month that people clean off the old things and prepare for the acceptance of the new ones.

On December 25th people prepare a special red beans porridge which has many round small rice cakes. It is believed that each family member will eat the number of rice balls of his or her ages. Every year each will add one ball and count their ages. After which house wife sprinkle some of the porridge on the kitchen wall which symbolize to kick out the evil spirits from the house. This is becoming a ritual to clean the old of the year to prepare to receive new of the coming year.

On December 31st, which is actually called Sut-Dal,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house is lit with lanterns and the gate is kept open. This is to let evil spirits out and call in good fortune. This is New Year's night and it is said that one must stay awake, because if one falls sleep one's eyebrows turn white.

황수철 부동산

NORTHEND 및 BELLEVUE 지역

522 - 7566

정확하고 친절한 여행안내

장여행사

C AND C TRAVEL SERVICE

IATA, ATC, PATA 회원

- 국내외 항공권(일부도 가능)
-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
- 각종 여행수속
- 호텔, 렌트 카 예약
- 공중업무
- 각종 번역 및 통역
- 항공 보험
- 이민 입출 안내

523-7057

* 24 시간 *

10212 5th Ave. NE #220 SEATTLE, WA 98125

편집을 마치고***

회보가 아직계를 갖추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광고로서 한인회보 발행의 비용을 찬조해주시는 광고주들의 고마우신뜻에 보답키위하여 희망하시는 업체들의 광고를 전부 내보내다가 보니까 회보의 일반기사내용 보다 광고가 많은것같은 느낌이 있는바 이와같은 사정을 감안 하시어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다. 보다더 충실하고 유익한 회보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간곡한 채척이 있기를 기대한다.

2월호 한인회보를 2월말경에는 각가정및 사업장에 도착하도록 발송하였는데 우체국과 한인회간의 행정 착오로 인하여 3월 초순에 배부된점에 대해서 고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하는 마음으로 감사주시면 고맙겠다.

김 목 공 소

● 신축 ● 증축 ● 수리 ● 실내장식



-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성심 성의껏 무료로 상담하여 드리웁고
- 거리제한 없이 무료로 견적하오며
- 언제라도 전화문의 환영합니다.

※ 최신형 공구및 장비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드립니다

소문난 김 대 진 목수

771-8019

3825-191st S.W.. Lynnwood, WA 98036

한인회보 1984년 제 3 호

발행인: 오 계 회

편집인: 박 승 휘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2611-125th St. NE

Seattle, WA 98125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206) 362-4500

◎ 순 한국식 중화요리

四川飯店

- 일류 요리사의 순 한국식 진미 요리로써 성심껏 한인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 짜장면, 짬뽕, 군만두, 양장피잡채, 팔보채, 탕수육, 라조기, 해삼탕, 불고기 기타 각종요리
- Lunch Special \$ 3.25
- 김치 무료제공

영업시간

화~목 11:30~10:30

금~일 12:00~11:00

● 월요일은 쉽니다.

★ TO-GO도 합니다.

14614 15th Ave NE SEATTLE

전화 365-9174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웁시다

이 규 영 계 리 사

귀중한 재산을
소중히 정리해드립니다.

- ※ 컴퓨터로 장부정리
- ※ 퇴직 연금 상담
- ※ 일반 인컴 텍스
- ※ 세무상담
- ※ 중소 기업 장부정리
- ※ 공증업무
- ※ 기밀 절대보장

(206) 623-4181/3

2809-4th Ave Seattle, WA 98121

LEE'S 타이어 및 자동차 종합 정비센터



투입

머플러

타이어

브레이크

삭오브 서버

모두

트랜스 및 송

완벽하게

고칩니다

프론트 엔드얼라인 먼트 (206) 362-4449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김철준 보험

새해에도 교포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승하심과 번영하심을 기원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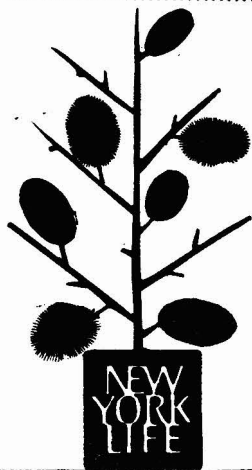
※건강보험: Blue Cross, Blue Shield, 2인 이상의 Group
건강보험 및 각종 건강보험을 알맞게 선택하
여 드립니다.

※생명보험: 기간, 적금, 장례비 Mortgage 등

※교육보험: 높은 이자율을 보증받으며 누계되는 이자에
대하여 세금 면제를 받는 보험, 현 11%의
이자율.

※노후연금보험: IRA, Keough등

※※제반보험 Claim, 보험 상식에 대한 문의에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시애틀 사무실
집
타코마 사무실

546-6586

367-1534

588-0333

18130 Midvale Ave N Seattle, WA 98133

리우드 TOPRIN 인쇄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24992 o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 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TO: HAHN, MAN-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01146